

## 폐교위기 ‘삼정학교’ 위해 (탈북주민 자녀 대안학교) 종단 스님들 정성 모은다

1억1500만원 전달... 아름다운동행 후원계좌 개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 스님들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 지원에 나섰다.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정만·세영·일관·진화·호산·정념스님 등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삼정학교(구 삼흥학교) 운영자금 1억15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삼정학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지난 2010년 개교했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지속적으로 삼정학교를 후원하며 남다른 인연을 이어왔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2012년 4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비

나눔 방으로 삼정학교를 찾아 운영기금을 전달하고, 선물, 간식 등을 지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일관스님은 평소 삼정학교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진화스님 역시 봉은사 주지 시절, 신도회와 함께 삼정학교 지원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정학교는 최근 보증금 2억원 후원이 중지되면서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평소 삼정학교를 후원하며 인연을 맺어 온 항림사 주지 일관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진화스님이 삼정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지원을 약속했고, 십시일반 스님들의 정성이 모여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총무원장 스님 역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5000만원을 쾌척하며 정성을 보냈다. 채경희 삼정학교 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소 일관스님과

진화스님이 삼정학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을 해주셨다. 이번에 스님들과 아름다운동행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들의 자비행으로 1억1500만원이 모였지만 여전히 학교 보증금에는 8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스님들과 아름다운동행은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모금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항림사 주지 일관스님은 “삼정학교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님들과 함께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게 됐다”며 “총무원장 스님께 서도 기금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기금 전달을 계기로 앞으로 모금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정학교 후원을 원하는 불자나 일반인은 아름다운동행 모금계좌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농협 301-0149-6186-11(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총무원장 스님 등 종단 스님들이 지난 17일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기관 삼정학교 운영자금 1억1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왼쪽부터 자광, 세영, 총무원장 자승, 일관, 호산, 진화스님.



이웃은 부처님 같이  
나 자신은 예수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대한불교총본산’ 조계사 일주문 앞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트리 점등식 참가자들의 ‘평화기원’ 기념촬영.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평화로운 세상” 기원

총무원, 조계사 앞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가톨릭 개신교 시설에 영유아용품 보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나종민 문화체육

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가해 “자비와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하얀 빛 가득히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며 “2014년 오늘, 예수의 이름은 화평과 사랑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인 세월호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조계종에서) 크리스마스 등을 밝히고 기쁘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점등식에 이어 산타 복장을 한 조계사 소년소녀한창단이 ‘장박을 보라’ ‘루돌프 사슴코’를 합창했으며,

참가자들도 합창단의 노래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12월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용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 이웃종교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하이힐은 한 번 신어 봐야 하지 않아요?

나는 고모가 스님입니다. 올 해 27세인 나는 광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금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이제 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그만 두고 고모 스님을 찾아와 자주 머물고 있습니다. 혼자 된 나날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생의 커다란 숙제 하나를 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가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미련이 남아 나는 차마 출가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모는 나날을 불러 인연을 끊을 결심으로 강력하게 출가

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물려설 수 없는 고모 스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고모 스님과 헤어지기 싫은 나는 기어들이기는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이힐은 한 번 신어보고 출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는 하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스님의 숙제 하나를 안게 된 것입니다. 고모 스님은 이때다. 하고 더 밀어 붙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원피스 입고 싶고 이 친구와 작별 하면 또 저 친구와 작별 하고 싶어 출가는 언제 하겠나?” 나는 결국 이번 크리스

마스 때 하이힐을 신고 친구들과 한 번 작별 행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출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출가할 때를 돌아보면 출가는 삶의 반전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반전은 아무나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출가가 아름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가귀감〉은 이야기합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

서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 불러 먹으려 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뛰어나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출가를 권한 고모 스님이 다나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이힐을 신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 이래서 출가해”하며 고모가 들려준 〈선가귀감〉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일주문을 향해 걸어들어가는 다나의 하이힐 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해 염불암

## 2015 장학생 18명 선발 “열심히 정진해 종단에 회향하길”

2015년 종단 장학생으로 국내 8명, 해외 4명, 사찰승가대학원 6명 등 총 18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는 스님들을 돕기 위해 장학제도를 도입한 이래 52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열심히 정진해서 종단과 대중을 위해 회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들

은 대승불교, 불교문화, 불교윤리, 인도철학, 일반 철학, 계율, 범패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해외대학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박사과정 해담스님(불교방법론), 미국 시카고대 박사과정 진학예정 덕일스님(초기대승불교),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 도신스님(불교윤리), 일본 하나조노대학 박사과정 도해스님(선학) 등이 선정됐다.

국내대학에서는 동국대 석박사통합과정에 담준스님(불교윤리), 단우스님(인도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 자엄스님(미술사학), 해원스님(계율), 선유스님(근대불교),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정현스님(대승불교), 서울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산성스님(현상학), 중앙대 박사과정 입학예정인 정목스님(범패) 등이다. 이와 함께 해인율학승가대학원 수미스님, 봉녕사율학승가대학원 원광, 유정스님,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연서, 해전스님, 동학사율학승가대학원 전문 2학년 보경스님 등이 선발됐다.

어현경 기자 eonaido@bulgyo.com

## 불교박람회 2015 참가업체모집

● 온라인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안내

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  
불교신문사 홈페이지(www.ibulgyo.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비 납입계좌 | 우리은행 1005-402-349312 예금주 (주)마인드디자인

※접수와 입금 완료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조기에 접수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015  
3.12 목  
3.15 일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  
S E T E 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